

바른. . 상도로. . 벤처의. . 내일을. . 만든다. .

바이오스페이스 차기철 대표

바이오스페이스 차기철 대표에게 올해는 여러모로 특별한 해이다. 닭띠생인 그가 4번째로 맞는 닭의 해이자, 회사 바이오스페이스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다. 하루하루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1년, 2년, 5년이 쌓이고 보면 우리는 하루하루 역사를 만들고 있지 않던가. 차대표와 바이오스페이스도 지난 10년간 쌓아온 역사를 뒤로 하고 다시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다. 체지방 측정기 한우물을 파며 세계 제일을 이루었듯, 이제 바이오스페이스는 불필요한 군살을 제거하고, 아주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또다시 시작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재미를 좇으면 돈은 따라온다

혹시 약간은 어려운 사람이 아닐까? 체지방 측정기로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 지독한 일본인들조차 정확도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기술력. 시뮬 바이오스페이스 차기철 대표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냉철함이 가득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직접 만난 그에게선 사람 냄새가 진하게 배어 나온다. 웃음은 진솔하고 듣는 마음은 항상 상대방에게 열려있는 듯했다.

하버드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 그는 체지방 분석사업을 구상한다. 정확도도 떨어지고 작동법도 어려워 의사와 간호사의 고충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재미있을 것 같았다.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냥 열정이 솟구치는 것이었다.

그의 확신과 달리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좀처럼 나서질 않았다. 잔뼈가 굵은 이들은 확실한 검증이 없으면 좀처럼 돈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좌절할 이유는 없었다. 즐거운 투자가 있으니 용감하게 직접 회사를 차렸다.

작동법은 쉬우면서 완벽한 정확도를 자랑하는 체지방 분석기가 출시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대형 병원과 한방병원, 헬스클럽에 체지방 분석기는 필수품으로 여기게 되었다.

덕분에 우직하게 살만 빼던 이들도 체지방을 먼저 챙긴다. 웰빙이나

몸짱 트렌드도 바이오스페이스의 도움이 컸다.

어느새 매출액도 100억을 훌쩍 넘어섰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 일본의 세계적인 체지방 분석 기업 '타니타'에 비해 매출액은 10배 정도 적지만, 대당 판매 가격은 바이오스페이스가 5배 가량 많다.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선진국형 시스템을 구축한 셈이다.

“한 가지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품군을 형성하기보다는 하나를 더 잘 만드는 것이 바이오스페이스가 나아갈 길입니다.”

구구절절 바른 기업 정신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단순한 그의 논리 속엔 정답이 숨어 있다. 제대로 된 장인 정신이 이토록 온전히 숨쉬고 있다니….

이공계 위기,

좋은 벤처 문화가 대안이다

“이공계 위기라고는 하지만, 학생들은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의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만큼 대가가 크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실상 좋은 벤처의 성공 사례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언론이 할 일이죠. 우수한 인재가 매달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 바로 벤처사업입니다.”



◀인재를 향한 열정, 채용 노트

모든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을 정도로 친밀한 회사 분위기.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운동과 여가 시간도 같이 보낸다. 전 직원 헬스클럽 운동 의무화를 비롯, 지방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까지 사원 복지에 대한 정성도 남다르다. 각종 채용 박람회에서도 채용 노트와 각종 현수막 설치 등 대기업에서조차 볼 수 없었던 인력 확보 프로젝트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되는 넉넉한 가족애. 이 중심에 차기철 대표가 있다.

▼ 세계 속의 바이오스페이스, 체지방 측정기

전문 체지방 측정기로는 단연 세계 최고인 바이오스페이스. 일본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발판 삼아 독일과 미국 시장을 힘차게 두들기고 있다. 전문가용으로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보수적인 서구 시장은 새로운 신제품을 받아들이는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최대 걸림돌. 유럽은 1일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모색 중이며 조만간 지구촌 전역에서 바이오스페이스 제품을 볼 수 있을 듯 하다.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바이오스페이스의 노력은 사뭇 감동적이다. 채용 노트를 제작해 회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덧붙인다. 충동적인 지원자보다는 제대로 알고 바이오스페이스에 지원하길 바라는 이유에서다. 공정한 인사 관리로 인재를 뽑는 건 물론이다. 대기업에서 똑같은 능력이면 남자를 선호하기에 자연스럽게 여성 인력이 많아졌다. 리베이트나 술자리 영업도 여성 직원들이 많으니 더 이상 유지될 수도 없다.

“기본기에 충실하면 됩니다. 제품이 훌륭하면 불필요한 영입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업무 외적인 만남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이 아무도 없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본인보다 더 유능한 전문 경영인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경영을 맡겨야 한다는 차기철 대표. ‘최선’이라는 채찍으로 스스로를 다잡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런 멋진 CEO를 알아보고 개개인의 혼을 불사르는 직원들 역시 뛰어난 인재임이 틀림없다. 최정에 요원들과 함께 세계적인 슈퍼 벤처로 거듭날 바이오스페이스를 기대해 본다.